

1848. 독일혁명

한 기 영*

< 차 례 >

1. 서 론
2. 본 론
 - 1) 계급의 결합
 - 2) 정치적 수동성
3. 결 론

1. 서 론

1848년의 독일 혁명은 반동으로 끝났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제가 완전히 살아난 것도 아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 입헌제도가 도입되고, 다른 영방(領邦)에서는 헌법을 근대화하였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나 혁명의 결과 부르주아가 지배계급으로 수용되었다. 수많은 영방에서 시민적 예속을 해제하고 봉건적 지배의 찌꺼기를 철폐하였다. 사회의 모습이 변화하였으며 이제는 3월 전기(前期)와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혁명의 성격을 가지지 않았다.

1848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토지 소유자들이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였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토지 소유자가 부르주아에 대하여 국가생활의 전통적인 담당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부르주아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대토지 소유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이 무렵의 상황은 토지 귀족이 계속하여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였다는 특색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혁명 이후 독일영방에 회복된 정부는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상승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념을 따라야 했다. 따라서 영방국가는 신분질서의 낡은 체제 대신에 입헌적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반동적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독일 민족이 실천에 옮기려고 한 이상(理想)- 공동의 조국 형성, 행정적 정치적 제한의 철폐, 자본의 예속으로부터 대중을 해방시키는 일- 은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

민족은 피할 수 없는 것과 타협(妥協)하는 것으로 만족하였으며 개인의 희망은 다른 목표를 향하였다.

1848년 질서의 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제 부흥, 캘리포니아 금의 유입과 동시에 발생한 경제 발전은 시민 계급을 크게 만족시켰다. 또한 시민 계급은 경기가 좋은 분위기에서 그의 정치적 실망에 대한 광범위한 보상(補償)을 받을 수 있었다.

1848년에 있었던 임금 인상이 1849년에는 없었다고 해도 노동자 계급은 생업의 활기로 이익을 얻었다.

실업자 통계 수치가 없다고 해도 경제부처 보고서에 근거하여 실업률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혁명의 역사는 1848년 유럽 혁명 운동의 테두리 안에서 혁명이 왜 실패하였나를 살펴야 할 것이다.

2. 본론

1) 계급의 결합

1848년의 혁명에 맑스주의의 도식화한 계급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궤변(詭辯)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적 시민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의 대립에 기초하는 혁명의 동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풍자화(諷刺畫)를 그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엥겔스(Engels) 스스로 경계하는 하나의 오류(誤謬)이다.¹⁾

사실은 1848년에는 아직도 동질의 그리고 목적 의식을 가진 노동자 계급이 없었다고 하는 점이다. 공장 노동자, 다시 말해서 공장에서 일

1) Jacques Droz, Die deutschen Revolutionen von 1848 (Darmstadt, 1983). S. 92.

하는 프롤레타리아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일하는 계급의 중심은 수공업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프롤레타리아로 전락(轉落) 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르주아와의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혁명보다 단체를 이룬 조직의 결합에서 위기의 해결을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아닌 과거 속에서 혁명보다 조직의 회복에서 해결을 바라고 있었다. 수공업 노동자는 경제 발전으로 자신의 위치를 옮겨야 하는 말하자면 품격(品格)이 떨어지는 신분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수공업자의 이상은 어떻게 하든 부르주아의 지위로 상승하는 것이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말하는 사회적 상황의 서술은 오히려 미래의 꿈을 제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베를린과 라이프치히 노동운동의 조직자 스테판 본(Stephan Born)이 그의 “일반 독일 노동자 연맹”에서 왜 계급 투쟁의 성격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²⁾

이 무렵 독일은 산업 부르주아가 아직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1848년 경 독일의 산업 부르주아는 그들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진행 중에 있는 혁명과 대중의 위협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투쟁에서 산업 부르주아는 이들 대중과 동맹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문제를 법(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부르주아의 자유주의는 인문주의적 및 기독교적 색채(色彩)가 너무 강하여 순수한 계급의 이해 즉 경제적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1848년의 혁명은 노동자측도 부르주아측도 힘 겨루기가 아니었다. 혁명의 결과 계급의 결합은 희망 사항이었다.³⁾

대립하는 계급이 결합하는 것은 정치적 요구이다. 혁명의 원인을 경제적 위기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혁명의 분위기를 복돋우기 위하여는 이러한 위기가 보탬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오직 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을 뿐이다. 혁명은 부르주아의 자유주의적 요구에 무게를 두었다. 자유주의의 요구는 지배층에 대하여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다. 생계를 위한 논쟁은 시장에서 약간의 소요(騷擾)를 가져왔다. 그러나 혁명이 진행함에 따라 간간이 고려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2) Ibid., S. 93.

3) Karl Griewank, Ursachen von 1848(Darmstsd, 1983), S. 70.

경제적 위기가 필연적으로 혁명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다. 경제적 위기는 자기의 길을 걸었다.⁴⁾

혁명은 정부가 사람들을 강요하고 경찰처럼 감시하는 가혹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3월 전야의 독일인은 이러한 상황- 언론 검열, 관료 정치의 술책, 법원의 자의적 판결, 행정의 전횡 등-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였다.

1848년의 혁명은 우선 절대주의에 대항하였다. 대중의 근본적 불만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있었다. 만약 정부가 강요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대중은 분명히 혁명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⁵⁾

혁명의 핵심 요인은 자유로운 사상을 억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혁명은 이미 1848년 이전에 시작하였다고 하는 바우어(B.Bauer)의 견해는 옳다. 다시 말해서 대중이 기독교 국가의 원칙에 대항하고, 옛 권력인 토지 귀족의 간섭에 저항하려고 한 그 순간에서부터 혁명은 시작하였다. 철학적, 종교적 저항에서 정치적 저항이 나타났다. 신학의 중간 단계를 거쳐서 정치 조직에 대한 비판적 판단이 가능하였다. 독일 카톨릭과 계몽주의의 보호 아래 형성된 자유 연맹은 점차로 정치 조직화하였다. 이 속으로 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진 엘리트들이 모였다. 의회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에 자유연맹의 대표가 있었으며 이들이 정치적 좌익을 이끈 것은 사실이다. 뢰롱(Dulon), 알트 하우스(Althaus), 바이로퍼(Bayrhofer), 쾨르너(Körner), 슈카르트(Schuchart), 에젠벡(Esenbeck), 허더만(Hadermann), 두에(Douai), 뢰스터(Füster) 등을 들 수 있다.⁶⁾

종교의 힘이 강하게 작용한 라인란트, 전통적 카톨릭의 바이에른, 프로테스탄트의 슈바벤 등의 지역에서는 자유연맹의 영향이 약하였다. 따라서 독일 절대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은 자유로운 사상의 합리적 및 반 교회주의적 저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⁷⁾

4) Droz, op. cit., S. 94.

5) Ibid., S. 94.

6) Ibid., S. 95.

7) Ibid., S. 95.

1848년의 독일인은 종교적 및 정치적 형태의 절대주의와 싸워야 했으므로 그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계급의 유대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시민계급, 지식층, 교육을 받은 노동자 계급 등이다. 3월 혁명의 성과를 지키기 위하여 공동의 강령 즉 “민족 전선”을 만들었다. 이러한 시도는 빈(Wien)에서 먼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혁명을 전달하는 확장기 구실을 하였다. 대학의 지성인, 민주성향의 시민, 특정 노동자 연맹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에서 나타났다. 빈은 10월까지 공간 위원회의 형식을 빌려 투쟁 전선을 보여 주었다.⁸⁾

베를린에서는 여러달 동안 언론 회관에서 혁명 진행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대중과 유대관계를 가지는 일정수의 시민 대표를 결의하였다. 서로 다른 계급이 합의한 행동 강령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었다. 여기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 사회적 평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사회혁명 혹은 사회주의적 조직의 이념은 나타나지 않았다. 독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하여 그 뒤 3월 혁명으로 이끈 민족 전선(Volksfront)의 정확한 관찰은 오직 1848 독일 혁명의 정치적 갈망의 우위(優位)를 뒷받침한다.⁹⁾

1848년 3월 부르주아와 노동자 계급 사이에 공공연한 대립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대립이 나타난 것은 혁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혹은 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독일 부르주아적 역사학(歷史學)의 오류이다.

독일 부르주아는 위협에 직면하였다.

① 노동의 권리와 관련한 노동자의 요구

②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을 위한 인간적 생존 등 사회주의적 혹은 공산주의적 교리. 다시 말해서 붉은 공화국의 위협을 느꼈다.

공산국이라는 단어가 왜 불안을 가져오는 낯은 용어가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부르주아는 평등 공산주의를 보수 반동보다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8) Ibid., S. 95.

9) Ibid., S. 96.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필요한 만큼"의 평등 공산주의 슬로건은 까베의 책 *Voyage en Icarie*에 실려 있다.¹⁰⁾

혁명 실패의 깊은 원인은 사회적 전복(顛覆)에 대한 두려움에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해 관계의 차이로 생긴 부르주아적 사이의 간격(間隔)은 더욱 넓혀져 있었다. 노동자 계급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결과 더욱 과격화하였다. 노동자 계급은 미래에 자기 자신 이외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혁명은 제 2의 국면(局面)으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노동자 연맹의 선전에 나타나는 정신 태도이다. 이들 중 일부는 마르크스의 영향 아래 들어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스테판 본의 노동자 형제단체에 가입한다.

행동의 양식은 서로 다르나,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노동자의 역할을 행사함에는 둘 다 기여(寄與)하였다.

쾰른(Köln), 빌레펠트(Bielefeld), 켐니츠(Chemnitz)의 언론에 나타난 수많은 풍자는 1848년 이래 독일 노동자의 혁명적 투쟁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이러한 의식 형성은 1849년 초 제 2의 혁명의 기초를 이룬다. 열기가 식어갈 무렵, 파리의 암담한 6월의 시기, 이러한 절망의 시기에 독일의 제 2의 혁명은 중요하다.¹¹⁾

혁명기간에 공산당 선언의 영향이 얼마나 깊이 작용하였는가?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진 부르주아와 노동자 계급사이의 갈등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동자 스스로 계급이해를 의식하고 혁명 에너지를 증거로 끌어들이 만큼 혁명의 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해도 혁명의 과정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이끌어 간 것은 노동자 계급이 아니다.¹²⁾

2) 정치적 수동성

민주주의 운동은 혁명의 극단적 결과를 배격하고 하나의 타협정책

10) Etienne Cabet, *Voyage en Icarie* (Geneve, 1979), p. X I V

11) Drez, op. cit., S. 97.

12) Ibid., S. 98

으로 기울어진 소시민의 손에 달려 있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언제나 소시민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독일 민주주의에 대하여 총괄적 유죄선고(有罪宣告)를 내리기 전에 판단의 어려움을 연구해야 한다. 독일에서 민주주의가 강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의 틀은 이미 불리(不利)하였다. 특히, 독일의 중·소영방(領邦)에서는 경제적, 도덕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궁정, 군대, 지배 계급 혹은 토지 귀족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지배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태리에서 보는 것처럼 전제 군주의 이기주의자가 아니다. 이들은 종종 인간적, 애국적 성향을 보여 주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폭동과 무질서의 계속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었다. 대중의 근본적 순종(順從)과 더불어 이러한 두려움에 부딪쳐 반혁명 행동 아니면 반공화주의로 나타났다.

진보주의 성향이 강한 라인란트에서조차도 반동(反動)의 손에 들어갔다. 비록 많은 도시가 혁명의 진행에 분명히 방해를 했다고 해도 이들 도시의 분위기(霧圍氣) 역시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선전이 덜 되어 있는 대도시에서는 서로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혁명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대립하여 목적을 추구하였다. 물론 1848년 가을, 빈(Wien)과 베를린(Berlin)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혁명 진압이 있는 후에 더 이상 혁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 도시가 많다. 관료와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칼스루에(Karlsruhe)와 같은 도시는 왕성한 정치운동을 하기에 극히 부적합하다. 1949년 봄, 혁명의 막바지에 대중을 고무(鼓舞)하고 혁명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도시가 없었다.¹³⁾

엥겔스가 이점을 간파하였다. 독일에는 무엇보다 대도시가 없다. 그곳의 결단이 큰 무게를 가져 동일한 불화로 다른 곳에서 다시 토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런던, 파리와 같은 대도시가 없다. 지리멸렬한 개별 투쟁으로 엄청난 피, 정열, 그리고 자본을 쏟아 붓고 결정적 성과를 얻을 수 없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¹⁴⁾

민주 개혁 사상가는 대중의 종교적 확신을 고려해야 한다. 반교회주

13) Ibid., S. 99.

14) Kari Marx, Werke, Band. 8, (Berlin, 1960), S. 13.

의는 좌익 성향의 분위기에서는 일방적이다. 무엇보다도 베스트팔렌(Westfalen)과 같이 성직자가 그의 영향력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어리석은 대중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버팀목은 교회와 성직자를 믿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와 싸운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신혜겔주의와 합리주의로 무장한 민주 개혁 사상가의 근본적 적대감(종교 생활의 신앙형태)은, 독일에서는 인기가 없었다.

베스트팔렌의 이상주의자이며 자유사상가인 의사 샤유엔부르크(Schaenburg)는 1848년 여름 농민에 의해 폭행을 당했으며 그해 말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대중이 민주개혁가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것, 특히 종교적 관습에 물이 든 농민이 성직자의 영향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쓴 투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¹⁵⁾

민주개혁가는 농민계급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였다. 특히 공동의 혁명 강령에 농민의 관심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계급의 저항(抵抗)이 도시보다 더욱 강력했던 시골이 혁명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1848년 3월 농민봉기의 경험을 뒤늦게 체험한 시골은 결코 다시 평온(平穩)을 찾지 못하였다.

헤센(Hessen) 지방에서, 민주성향의 대학생 펜트(Fendt)가 농민을 열렬한 민주주의 옹호자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토지 귀족의 세금 관리에 대항하는 농민의 증오(憎惡)에 기인한다.

엘베(Elbe) 강 이동(以東)에서는 봉건영주나 토지 귀족이 지배 계급이었으며, 그들은 농노의 부역노동을 통하여 농민계급의 분해를 막고 있었다. 토지 귀족은 영주경제(Gutsherrschaft)의 형태로, 농민을 토지 소유에서 분리시켜 강력한 권력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¹⁶⁾

옛 프로이센 군주의 지역에서조차도 1848년 5월 수많은 농민은 지역 영주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슐레지엔(Schlesien)에서는 농민들이 조세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

15) Droz, op. cit., S. 100.

16) R.Krzymowski, Geschichte der deutschen Landwirtschaft, (Berlin, 1951), S. 175.

하여 “농민연합”을 조직하였다. 이것은 1848년 11월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조세 거절의 확실한 준비로 특징 지을 수 있다.

메클렌부르크(Mecklenburg)에서는 농민들이 강제 노역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 결과 1848년 헌법 제정 의회 대표선출에서 투표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다.

의심할 여지없이 민주 개혁 사상가들은 이러한 잠재하는 불만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방법은 언론을 통하거나 아니면 선거인과 대의원 사이의 규칙적인 접촉을 통해서이다. 민주개혁 사상가는 알맞은 정열을 가지고 봉건 제도의 폐지를 밀어붙이는 대신 도시와 농촌 사이의 날카로운 대립을 참았다.¹⁷⁾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독일 농민들이 수미일관(首尾一貫)한 행동으로 그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오스트리아 쿠드리히(Kudlich)에서는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농노제도를 없애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빈(Wien) 제국의회에는 대표를 보내지 못하였다. 제국헌법투쟁에 참여하는 대신 그들은 움츠려 들었다.

그 이외에 농민 대중을 감동시킨 동유럽 출신의 민주 개혁 사상가로 뎀브로스키(Dembrowski)와 벨체스쿠(Belcescu)를 들 수 있다.¹⁸⁾

독일 민주당은 매우 약한 기반에서 출발한다.

- ① 구체제의 억눌린 생활 관습
- ② 종교적 전통과 사회 질서
- ③ 더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지방 분권주의

이러한 상황의 독일에서, 과연 맑스가 행한 것처럼 통일 사회주의 독일 공화국 건설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의 행위가 지리적, 사회적 범위에 제한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독일 민주 개혁 사상가의 눈에는 맑스와 같은 행위는 불손(不遜)하게 보인다.¹⁹⁾

독일 혁명의 반동은 어떻게 하여 쉽게 이루어졌나?

17) Droz., op. cit., S. 101.

18) Ibid., S. 101.

19) Ibid., S. 101.

첫째로 1848 혁명을 체험한 독일의 여러 영방은 명령에 쉽게 따르는 동일한 방법으로 드러난다. 사회주의의 성공에 대한 지배 계급의 불안은 유럽의 현상이었다. 1848년 2월 상드(Sand)는 다음과 같이 쓴다.

“부르주아는 합의에 찌푸린 얼굴을 하고, 무릎을 부르르 떨었다.” 더 이상 잘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파리, 베를린, 빈의 공장에서도 비슷하게 반동이 일어났다. 당시의 평론지, “두 세계의 견해”(Revue des Deux Mondes)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약탈, 폭력, 방화를 일삼는 야수(野獸)의 세계를 보는 것 같다.」²⁰⁾

유럽의 부르주아는 굶주리고, 절망과 싸우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대중과 대립하려고 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은 기독교 문화의 사랑과 더불어 계급의 이해를 동등하게 추구하였다. 계급의 이해는 이미 사회주의 대중의 욕구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붉은 민주주의”와 투쟁하기 위하여 부르주아가 생각해낸 방법 - 교회의 힘을 빌리는 것, 보통 투표권의 제한, 무력사용 심지어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것 - 은 어디에서나 동일하였으며,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 파견된 부르주아 대표의 불안에 찬 연설은 아체글리오(Azeglio)의 “공포와 희망”에 일치하였다. 빈(Wien) 부르주아의 허약성은 헝가리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을 항의하지 못한 점에서 드러난다. 1850년, 로미외(F.Romieu)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니콜라이 1세는 네바강가에 의연한 자세로 서서 혁명 진압을 위한 군대의 투입을 지시한다.”

착한 사람이 가진 예속의 정신은 1848년 비극이 빚어낸 보편화한 현상이다.

두 번째로 개별의 성격이든 혹은 집단의 성격이든 시민적 용기를 보여주는 예는,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많다.

인터내셔널의 공포가 나타났을 때 용기 있는 행위도 나타났다. 베를

20) Ibid., S. 111.

린, 파리, 밀라노에서 수공업 도제가 최상의 혁명 전사로 되었다. 신체적 용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용기를 발휘한 인물로 야코비(Jacoby), 발덱(Waldeck), 템(Temme), 슈르츠(Schurz), 킨켈(Kinkel) 등을 들 수 있다.

혁명이 실패한 후, 그들은 법정을 떠돌다가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다. 독일 민주주의는 결코 공동의 미래를 위한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없었다. 종종 자유를 향한 부르짖음은 멀리 동쪽에서 울려 퍼졌으며, 추종자가 나타났다.

유럽에서, 그와 비슷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주 연합의 비중과 자유로운 보통 선거의 투표 결과는 강력한 다수의 좌익의 존재를 보여주었다.²¹⁾ 비록 그들이 언제나 위협을 받고 체포되기도 했지만 지방에 나타난 “지도자”를 통해서 대중은 그들 권리의 의식을 가졌다.

1848년 독일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독일 민족의 정치적 수동성은 기본적인 특성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독일인에게는 낯선 것이며 언제나 외부로부터 강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신은 독일인이 혁명을 일으킬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 한없이 토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인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독일인은 독일에서의 혁명을 스스로 믿지 않고 있다. 다른 민족이 혁명을 시작하거나 혹은 외부의 힘이 독일인을 밀어주거나 이끌어야 한다. 독일인 스스로는 결코 토론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²²⁾ 우리가 독일인에게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겸손의 정신 혹은 훈련된 복종의 정신은, 1848년 동안에 어쨌든 눈에 띄지 않는다.

혁명 실패의 원인을 오히려 극단의 개인주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독일인의 행위를 철저히 심리학적 근거에서 분석한다면 아마 바쿠닌(Bakunin)의 표현이 옳을 것이다.

“Anarchie(아나키)는 독일인의 정신, 성격, 생활의 특징이다. 도시와 시골, 같은 지역의 주민, 모든 독일인의 사상, 마음, 의지 속에 각자의

21) Ibid., S. 112.

22) Michael Bakunin, Staatlichkeit und Anarchie (Karin Kramer Verlag: 1972), S. 238.

생각을 가진다. 이것은 독일 교리 문답의 최초의 신앙고백이며 모든 독일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다.”²³⁾

사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사회 계급이 상당히 비슷하게 작용한다. 파리와 베를린의 도제, 르낭(Renan) 혹은 비르코프(Virchow)와 같은 학자. 몽탈랑베르(Montalembert) 혹은 부스(Buss)와 같은 카톨릭 귀족. 달만(Dahlmann) 혹은 로시(Rossi)와 같은 지식인의 행위를 유추(類推)할 수 있다. 어떤 민족이 어느 특정의 정치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술하는 심리학적 설명은 하나의 편리한 오류(誤謬)이다.²⁴⁾

3. 결론

1848년 혁명의 복합적 요인은 다양한 민족의 특성이 아니라 민족 경제의 불균등(不均等)한 발전 그 결과 나타나는 여러 계급의 권력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교양을 갖추고 있으며 덜 폐쇄적인 그리고 이질적 요인으로 분열되어 있는 비교적 가난한 부르주아는 우익(右翼)에서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옛 지배 계급과 부딪혔다. 옛 지배 계급은 루터파 종교의 복종, 튼튼한 보수주의 교리와 더불어 ‘헤겔(Hegel)과 낭만주의에 물이 들어 사회적 결합에 대한 가부장(家父長)적 우위를 주장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는 좌익(左翼)에서 노동 세계의 난폭한 요구에 부딪힌다. 부르주아는 노동세계에 대하여 낯설었으며 불안을 느꼈다. 양쪽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부르주아는 스스로를 사회적 방위의 힘에 맡겼다. 사회적 방위에 대하여 부르주아는 이해(利害)의 측면보다 두려움의 측면에 일치하였다. 독일 부르주아는 1688년의 영국, 1789년의 프랑스에서처럼 혁명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소국 분립주의(分立主義)로 경제 발전이 지연된 독일은 자유로운 조직을 진척시킬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앞서간 산업은

23) Droz., op. cit., S. 113.

24) Ibid., S. 113.

이미 위협적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라는 대립하는 계급을 낳았다.

이러한 사실로, 독일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는 의회 제도라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없었다. 독일 민족은 자기의 운명을 손안에 넣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 독일 역사의 갈라진 틈이 나타난다. 1870년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도 비스마르크(Bismarck) 시대의 천재적 타협을 통해서도 이 틈을 메울 수 없었다.

이러한 근거로 독일인은 유럽의 여러 나라가 갖는 1848년의 상속 유산을 가지기 어려웠다. 오랜 시간 그렇게 해 온 것처럼 유산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이 1848년의 선례(先例)가 그들에게 남긴 시민 의식의 훌륭한 본보기를 깨달을 때 독일 통일의 승리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²⁵⁾

25) Ibid., S. 114.